

## “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충고 ”

### ■ 이종윤 원로목사

현대 교회는 그 형태가 크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세상으로부터 심한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도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가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도 없다. 타락한 백성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할 엘리야도 보이지 않는다. 악하고 구부러진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목을 내놓고 외친 세례 요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진리 되신 예수께로 끌고 간 마틴 루터도 없다. 조국을 위해 기도한 존 낙스도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다. 소아시아 지방의 라오디게아교회를 향해 주님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벗겨벗었다고 진단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의 한국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눈이 먼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볼 수 없는 무지를 알지 못했다. 찬지 더운지도 모른다. 윤리적, 교리적 부패를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다. 자기 기만에 빠져 벗겨벗은 수치도 모른다.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의 처방전이 나왔다. 그것은 내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수치를 가리게 하며 보게 하라신다. 불로 연단한 금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사되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와서 사라 하신다. 라오디게아처럼 현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야한다. 한국교회의 빈곤은 물질적인 것이나 영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결여다.

신학교에서 성경과목이 부족하다.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에 시간을 보내느니 빨리 설교 잘하는 법을 배우야 하고 대중심리를 이해하는 학문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이 성경과목보다 많이 배정되는 오늘의 신학교 커리큘럼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나님 말씀에 굶주렸던 라오디게아교회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에 붙잡혔다.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말씀만(Sola Scriptura)을 강조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벗겨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신다. 우리 주님은 빛의 옷을 입으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옳은 행실의 옷이 없어 벗겨벗은 수치를 당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라고 루터는 외쳤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하나님의 뜻도 영광도 보지 못한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빛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당신은 영원을 보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 영원을 볼 수 없다. 이런 이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신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는 현재도 미래 구원도 볼 수도 받을 수도 없다. 루터는 공로신학을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표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의 옷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현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55호] 2013년 2월 9일 발췌-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복귀한 3부 예배 형태로 진행하되,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방역수칙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예정했던 성찬식은 갖지 않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을 지나면서 교회 분쟁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맥추절 감사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시어 예배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주부터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628\\_sermon.jpg](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628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b>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b>	<b>서울교회QR코드</b> 
	<b>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b>	
<b>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b>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역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화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화),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오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다스도 린록 수만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희영 이금순 김명알(군선교) / 정성진·홍성암(필라위),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

### ■ 고전 3:1-5

믿음이 강한 연약하든, 그가 가련한 상태에 있든, 개인적인 느낌이 어떠한 참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생령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전 2:14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언급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은 후자에 속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 1.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단호하게 규정된 것은 그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오감에 예속되어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그런 마음이 제지될 때 조금도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과 감정에 따라 말하며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게 합니다. 초신자는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가 저야 할 십자가 지는 것에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 2. 시기와 다름과 분쟁을 초래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시기와 다름과 분쟁으로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과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대로 순응하려는 것 사이에 순간순간마다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대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언제나 돌이켜 십자가를 붙들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이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하심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지적하며 탄식한 것은 그들을 그대로 두면 사탄의 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약 3:13-18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우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 맺는 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성숙한 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자기 통제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부단히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성을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스스로 가지치기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은 어렵게 때 부지런히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늘 겸손히 배우며 따르면서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11시20분	전재홍 목사	양춘경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시 145:8-1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다 함 께 6(8).....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6(감사절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다 함 께 1(1) .....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다 함 께 66(20).....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시 106: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맥추감사헌금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다 함 께 634(70)...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	“여호와께 감사하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	다 함 께 260(194).....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금주의 성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시 106:1)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42:11 .....
인 도 자	
찬 송 .....	288(204)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히 13:7-19 .....
인 도 자	
설 교 ...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인터넷 영상
찬 송 .....	324(360)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정기당회 / 8일(수) 오후 7시 104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2-4, 4-5, 5-5, 16-6다락방
◆ 결 혼	1. 백성훈 군(16교구 백도환 집사, 석춘희 권사의 장남)과 김지혜 양(김중혁 집사, 유임숙 권사의 장녀) / 7월11일(토) 오후 12시 그레이시 코엑스 2층 아셈볼룸(02-6002-2005) / 9호선 봉은사역 1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650명	269명	1,919명	1,879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6/28)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28일	헌 금	33,642,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870,000
	특별예배비		76,560
	찬양운영비		7,140,000
	교회학교운영비		2,291,850
	행 사 비		126,000
	출 판 비		1,210,000
	복리후생비		75,800
	통 신 비		453,600
	수도광열비		623,020
	차량유지비		1,774,200
	소모품비		444,390
	환경유지비		141,600
	수선유지비		789,030
	식당운영비		335,830
	합 계	33,642,000	97,302,880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